



공주

나라사랑 역사의 길

제3편_공주지역의 독립운동

‘나라사랑 역사의 길’은 독립기념관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국내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기록물이다. 이 길은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사적지를 중심으로 현충시설, 전근대 역사유적, 경관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역사의 길로, 우리나라 989개의 독립운동시설과 1,322개의 국가수호시설 등 총 2,311개의 현충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탐방 코스를 제공한다. 도로교통 저널에서는 독립운동과 6·25전쟁의 국가수호 사적지를 알리고, ‘나라사랑 역사의 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획 연재를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충남 공주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 탐방로 안내

충남 공주지역에서 전개된 학생·청년운동의 현장을 돌아보는 코스이다. 이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맞서 만세시위,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지역사회운동을 주도했던 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긴다. 함께 가볼 만한 곳은 송의사, 공주역사영상관, 옛 충남도청 터, 공산성, 국립공주박물관, 충남역사박물관, 오강포 순절지 - 공주향교, 우금치전적지가 있다.

▶ 코스 개요

1920년대 전후 공주지역에서는 학생·청년중심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만세시위준비, 일본인 교사의 민족차별과 식민지교육에 항거한 동맹휴학, 청년들이 주도한 노동야학·민립대학 설립운동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주 영명학교 학생들은 1919년 4월 1일 공주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의 주도세력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교사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인쇄·배포하는데 앞장섰다.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1927년과 1929년 일본인 교사의 횡포와 멸시, 식민지교육에 대항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아울러 공주청년수양회를 중심으로 청년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공주지역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하여 민립대학기성회 공주지방부를 조직하고 활발한 모금활동을 벌였다. 이 코스에서는 1919년 4월 1일 만세시위 당시 영명학교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준비한 영명학교 기숙사 터와 1927년과 1929년 두 차례에 걸쳐 동맹휴학을 단행한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1920년대 공주청년수양회가 사용하던 공주청년회관 터, 1923년 민립대학기성회 공주지방부가 조직된 영은사를 돌아본다. 아울러 공주지역에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근대교육의 기초를 닦았던 공주 영명학교 선교사 사택과 유관순이 다녔던 공주제일교회도 함께 살펴본다.

탐방로 안내

① 공주 영명학교 기숙사 터 (3·1운동 만세시위 준비지)

② 공주 영명학교 선교사 사택

③ 옛 공주청년회관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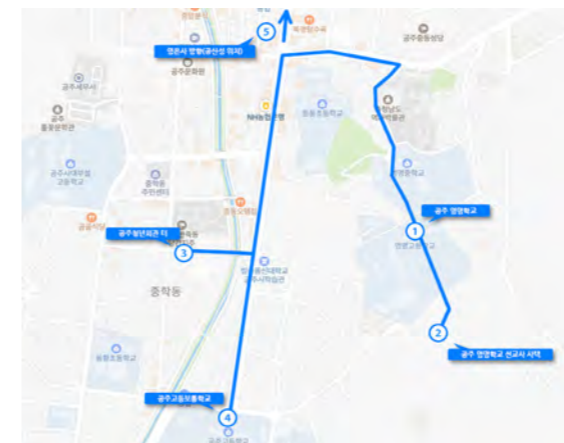
④ 공주제일교회

⑤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동맹휴학지

⑥ 영은사(민립대학기성회 공주지방부 창립지)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일대
(총 드라이브 소요시간 약 30분)



공주 영명학교 기숙사 터(공주 3·1운동 만세시위 준비지)



1919년 4월 1일 공주시장에서 전개된 3·1운동 만세 시위는 영명학교 목사와 교사 및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였다. 영명학교는 공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로, 1906년에 세워졌다. 특히 아우내 장터 3·1운동을 주도한 유관순과 그의 사촌으로 공주 3·1운동을 주도한 유준석, 병천 출신으로 흥사단·신간회 활동과 함께 해방 후 대통령 후보에도 올랐던 조병옥 등이 영명학교 출신이다. 공주 영명학교 기숙사 터에는 현재 영명중·고등학교의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충남 공주시 영명학당2길 33

공주 영명학교 선교사 사택



공주 중화동에 위치한 구 선교사 가옥은 20세기 초부터 선교사들의 사택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영명학교의 교육 시설로 활용되었고, 현재는 공주시에서 이 건물을 문화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21년에 감리교회 소속 선교사 사택으로 건립된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로, 내부의 제단실과 각 층의 공간이 스킵 플로어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교사 사택에서 영명고등학교 사이의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동쪽 송림에 선교사 묘지가 있다. 이 묘지에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계몽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묻혀 있다. 참고로, 영명학교를 운영했던 선교사 사에리시는 1913년 천안 지방 선교 여행에서 12세 소녀였던 유관순을 데려와 수양딸로 삼고 2년 동안 공부시킨 뒤, 서울 이화학당으로 보냈다고 한다.

충남 공주시 쪽지골길 1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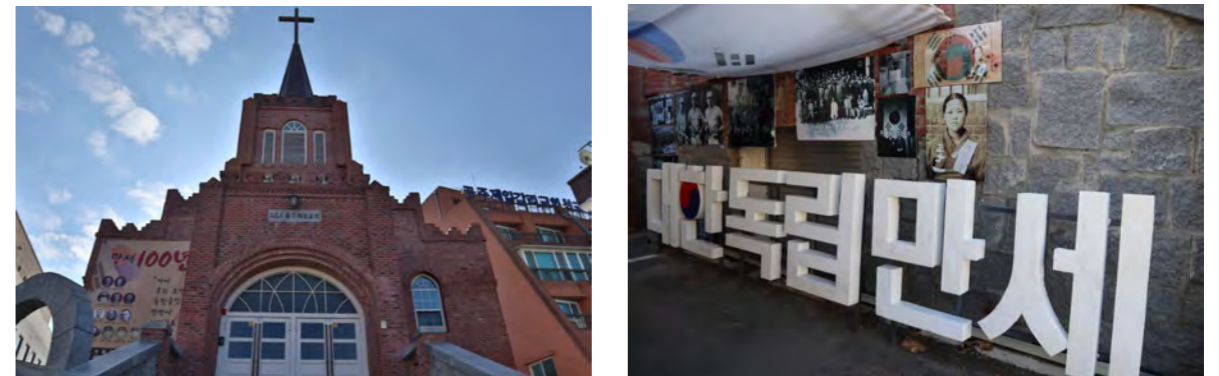
옛 공주청년회관 터



공주청년회관은 공주청년수양회와 공주청년회가 회관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공주지역의 청년운동은 1920년대 초, 공주청년수양회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공주청년수양회는 1925년 11월 '혁신운동'을 단행해 공주청년수양회를 공주청년회로 변경하면서 혁신적인 체제로 변모했으며, 1927년 12월에는 '혁신총회'를 개최해 조직과 강령을 새롭게 제정했다. 공주청년회는 공주가 관료와 유지 집단의 기반이 강했던 지역적 한계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으나, 1930년대 초까지 지역사회 운동을 주도했다. 옛 공주청년회관 터는 현재 당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충남 공주시 제민길 18

공주제일교회



옛 공주청년회관 터 바로 옆에 공주제일교회 기독교박물관이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공주제일교회는 공주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회이다. 1903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맥길리 이용주 전도사의 도움으로 공주제일교회를 설립하였고, 1905년 그의 귀국 후 샤프 선교사 부부가 부임했다. 1906년 우리암 선교사는 영명학교(현 영명고등학교)를 설립해 신도들을 교육했으며, 1919년 이후 한국인 목사를 전임으로 유치원과 병원을 경영하였다. 충청지역 감리교 선교의 중심지이자 선교부의 중심역할을 한 공주제일교회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상당 부분 파손되었다가 교인들의 힘으로 재건되었다. 공주제일교회는 다방면에 걸쳐 근대화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충남 공주시 제민길 18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동맹휴학지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1927년과 1929년 두 차례에 걸쳐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1932년 2월에는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인 김순태·노수남·유석순 등이 공주소년연맹 안병두 등과 반전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반제격문을 인쇄·살포하였다. 1936년 3월에는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인 김용갑·구자훈·김해인·천영관 등이 비밀결사인 명랑클럽을 결성하고, '일어서 용금지·신사참배거부·일인교육배척' 등을 주장하며 항일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건물은 6·25전쟁 때 모두 소실되었고, 이후 신축해 현재 공주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 공주고담길 2

영은사(민립대학기성회 공주지방부 창립지)



1922년 서울에서 민립대학기성회가 조직되면서 전국적으로 민립대학기성회 지방부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1923년 5월 경성 지방부가 조직된 후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지방부가 설립되었으며, 공주지방부는 1923년 8월 25일 공주 산성공원 안에 있는 영은사(靈隱寺)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직되었다. 공주지방부는 집행위원장에 유정현, 상임위원에 김현구·서덕순·김배세 등을 선출하였다. 공주지방부는 같은 해 9월 공주공립보통학교에서 민립대학 설립 선전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집행위원들을 중심으로 각 면에 선전위원들을 파견해 지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충남 공주시 공산성길 59-22

함께 가볼만한 곳



백제 고도의 역사를 담은 공산성

공주 공산성은 충남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백제 웅진도읍기(475~538년)의 왕성(王城)으로, 당시에는 웅진성(熊津城)이라 불렀다. 성벽은 현재 동벽 일부가 토성이고 나머지는 석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백제 때 토성으로 축조되었으나, 조선시대 때 석성으로 개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웅진기에는 왕성이고, 사비기에는 북방성(北方城)이었으며, 통일신라 때는 웅천주(熊川州)의 치소성이기도 했다. 임진왜란 이후 충청 감영(監營)이 충주에서 공주로 옮겨질 때 감영이 성내에 있었고, 인조 임금의 이괄의 난을 피해 이곳으로 피신하기도 하였다.

공주의 공산성을 비롯하여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 부여·익산의 백제유적 8곳이 '백제역사 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특히, 공주 공산성은 성벽 축조에 사용된 판축기법(고운흙과 모래흙을 번갈아 다져서 쌓는 방법)과 벽주건물지(도랑을 파 기둥을 촘촘하게 세운 후 고운흙으로 벽을 발라 만든 건물지)는 고대 중국 및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통한 백제의 토목건축 기술 발전과 전파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받고 있다.

공산성 금서로(서문)의 성벽은 한국의 그 어느 성곽보다도 아름답다. 성곽을 따라 걸으면 공주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주소 : 충남 공주시 웅진로 280
 입장료 : 어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온누리 공주 시민 가입자 50% 할인)
 ※ 단체 20인 이상인 경우, 어른 2,5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500원



출처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공주시 홈페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와 사진을 제공해주신 독립기념관, 공주시청,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